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08년 11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
 - 2008년 11월 광공업 생산은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4.1%(전월대비 10.7%, 5개월 연속 감소세)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전월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생산은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27.5%)는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5.6%), 자동차(-16.2%), 영상음향통신(-23.8%) 등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본건 및 사회복지사업(6.7%), 오락·문화·운동관련업(6.3%), 금융 및 보험업(3.1%)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7.6%), 도매 및 소매업(-6.5%), 운수업(-5.7%), 교육서비스업(-4.0%)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감소함.
 - 2008년 11월 소비, 투자 모두 각각 전년동월대비 5.9%, 18.0% 감소함.
 -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감소로 인한 내구재(-16.3%), 의복·직물 등 준내구재(-3.8%), 가공식품 등 비내구재(-1.6%)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는 디스플레이제조장비, 자동제어반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공정장비, 굴착기 등에서는 줄어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건설투자는 국내 건설기성이 민간 및 건축공사 실적저조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였고, 건설투자의 선행지표격인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신규주택 및 재건축 수주실적 저조로 전년동월대비 3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 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4로 전월보다 2.0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대비도 전월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0개월째 동반 하락세를 보임.

◆ 2008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대비 4.7% 상승(생활물가지수 5.4% 상승)

-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9.7(2005=100)로 나타나 통신부문만 1.4% 하락하였고, 교통, 주거 및 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나머지 부문에서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1%,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농축수산물 2.5%, 공업제품 4.9%, 서비스 4.0% 상승하였으며, 특히 공업제품 중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류는 전년동월대비 8.9% 하락하여 2007년 5월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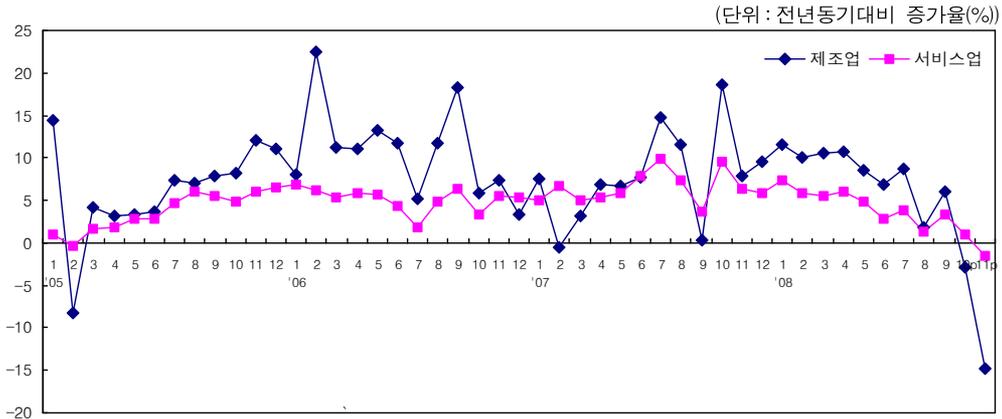
		2006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1월	4/4	연간	1/4	2/4	3/4p	10월p	11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7.0	5.9	7.6	11.0	6.8	10.6	8.6	5.6	-2.3	-14.7(12.0)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7.1	6.2	7.6	11.2	7.0	10.7	9.0	5.6	-2.8	-14.8(-10.7)
	출하	9.7	9.0	9.2	3.8	7.8	5.1	7.2	5.4	7.6	10.6	7.1	8.9	6.3	5.4	-2.2	-13.4(11.1)
	수출	13.1	14.2	15.7	5.6	11.9	6.7	9.9	9.1	12.0	16.2	10.2	14.3	13.5	10.5	0.7	-12.3(15.8)
	내수	7.1	4.9	3.8	2.2	4.5	4.1	4.9	3.0	4.7	6.8	4.9	5.3	1.7	1.7	-4.3	-14.3(11.3)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6.4	7.2	6.3	6.8	6.4	6.4	4.6	2.7	1.4	-1.6(2.4)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5.2	7.1	4.4	4.5	5.3	3.9	2.5	1.0	-3.7	-5.9(2.3)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12.1	0.7	10.4	9.2	8.6	-0.9	0.1	6.2	-7.7	-18.0(1.3)
물가		2.0	2.3	2.5	2.2	2.2	2.1	2.4	2.3	3.6	3.3	2.5	3.8	4.8	5.5	4.5	4.1(0.0)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 3) 물가는 11월, 1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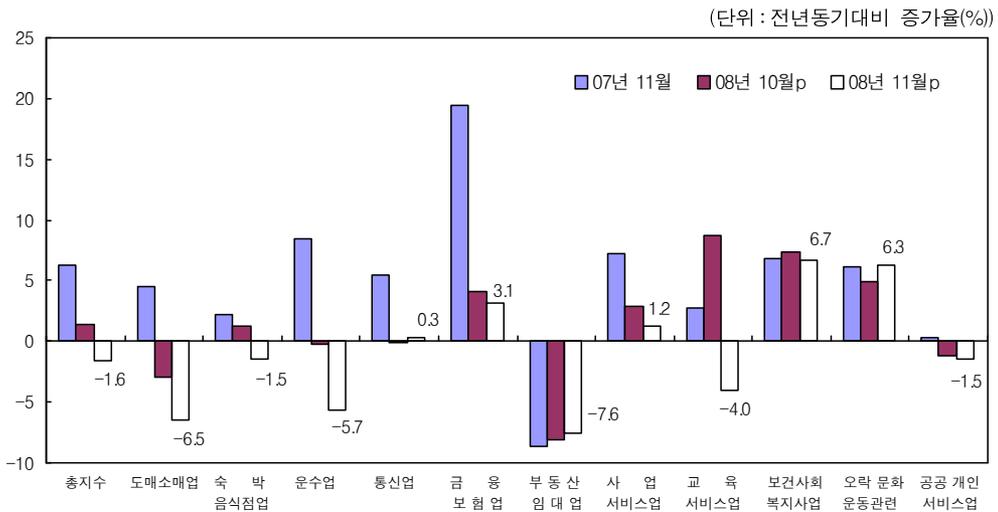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8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08. 12.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세 지속

- 2008년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56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5천 명(0.4%)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310천 명으로 87천 명(0.6%)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256

천 명으로 7천 명(0.1%) 증가함.

- 2008년 1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7%)이 전년동기대비 0.5%p, 여성(50.4%)이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함(그림 4 참조).
- 2008년 11월 중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2%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하였음.
- 2008년 11월 중 취업자는 23,81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8천 명(0.3%)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1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천 명(0.5%), 여성 취업자는 10,00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천 명(0.1%)이 증가함(그림 5 참조).
- 2008년 11월 중 실업자는 75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천 명(2.3%)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49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1천 명(4.3%)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5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천 명(-1.4%)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5%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2.4%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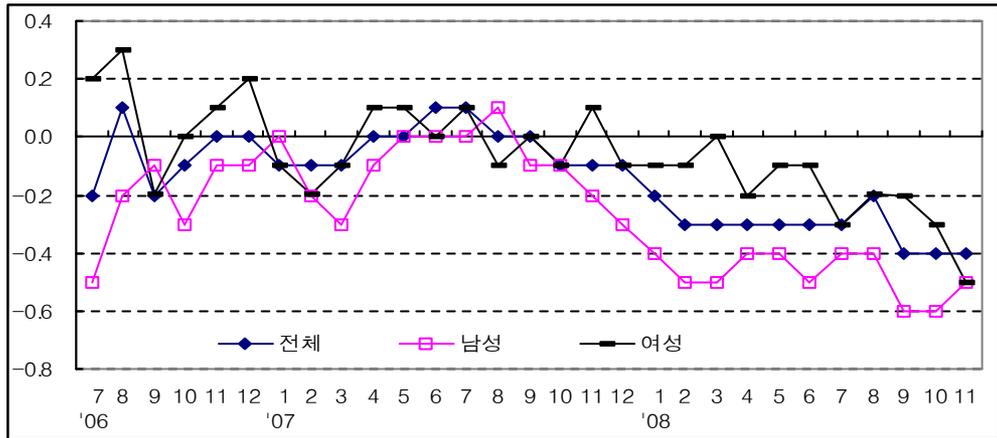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23,692 (0.9)	24,489 (1.1)	24,367 (1.1)	24,316 (1.0)	24,471 (1.0)	23,852 (0.7)	24,638 (0.6)	24,503 (0.6)	24,582 (0.4)	24,566 (0.4)
참가율	60.8	62.6	62.1	61.8	62.2	60.5	62.3	61.8	61.9	61.8
취업자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582 (1.2)	23,739 (1.2)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847 (0.4)	23,816 (0.3)
고용률	58.6	60.6	60.2	60.0	60.4	58.5	60.4	59.9	60.0	59.9
실업자	851	791	756	734	733	801	767	752	736	750
실업률	3.6	3.2	3.1	3.0	3.0	3.4	3.1	3.1	3.0	3.1
비경제활동인구	15,305 (1.4)	14,647 (1.0)	14,865 (1.0)	15,000 (1.3)	14,845 (1.2)	15,575 (1.8)	14,903 (1.7)	15,154 (1.9)	15,144 (2.3)	15,201 (2.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2008년 11월 고용동향』, 2008. 12.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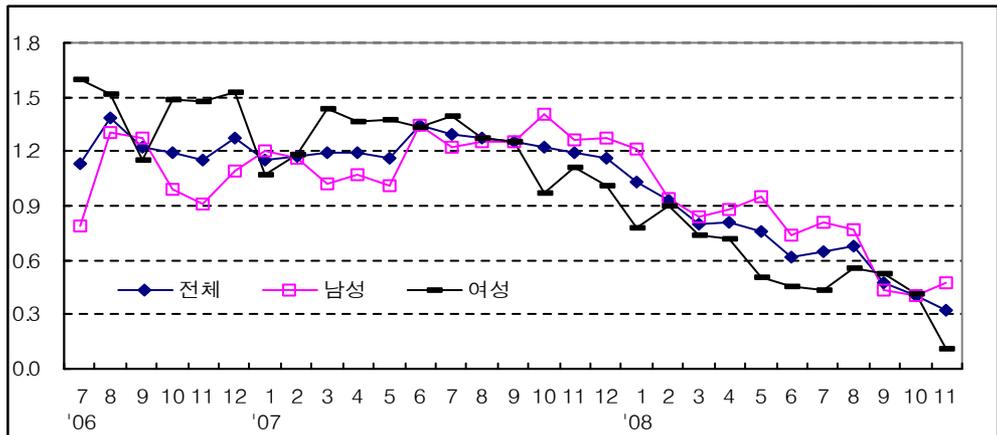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8년 1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20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6천 명(2.4%)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11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2천 명(3.3%)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09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4천 명(2.0%)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402천 명으로 138천 명(3.2%), 구직단념자는 12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5천 명(24.6%),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2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0천 명(6.4%) 증가함.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8년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8천 명, 3.0%), 농림어업(47천 명, 2.7%)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9천 명, -1.4%), 제조업(-56천 명, -1.4%), 전기·운수·통신·금융업(-47천 명, -1.9%), 건설업(-29천 명, -1.6%)에서는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 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07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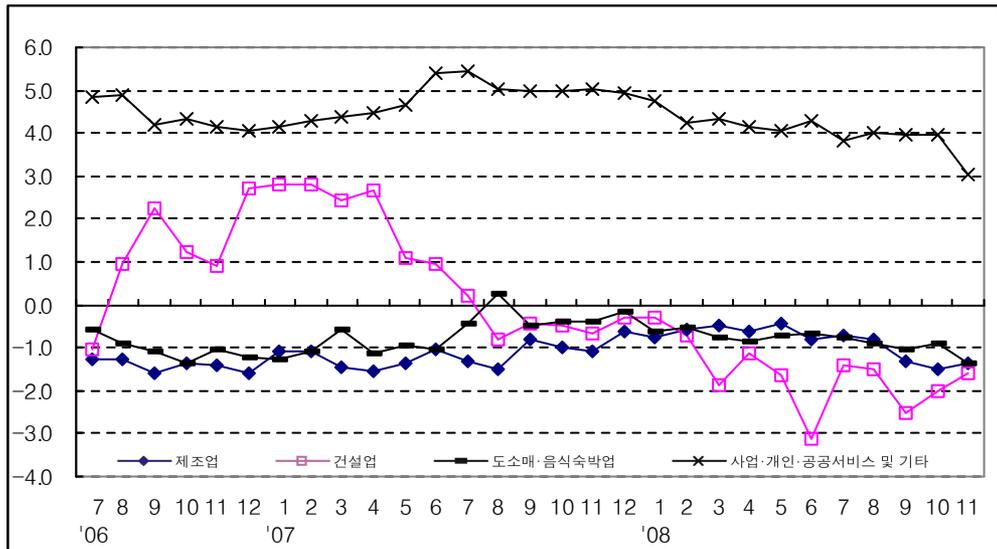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산업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582 (1.2)	23,739 (1.2)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847 (0.4)	23,816 (0.3)
농림어업	1,450 (-2.8)	1,900 (-2.7)	1,866 (-3.7)	1,690 (-3.8)	1,772 (-3.5)	1,388 (-4.3)	1,848 (-2.7)	1,831 (-1.8)	1,883 (-0.9)	1,819 (2.7)
제조업	4,138 (-1.2)	4,126 (-1.3)	4,093 (-1.2)	4,120 (-0.9)	4,092 (-1.1)	4,114 (-0.6)	4,101 (-0.6)	4,055 (-0.9)	4,079 (-1.5)	4,036 (-1.4)
건설업	1,772 (2.7)	1,934 (1.6)	1,843 (-0.3)	1,853 (-0.5)	1,875 (-0.7)	1,754 (-1.0)	1,896 (-2.0)	1,809 (-1.8)	1,838 (-2.0)	1,845 (-1.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15 (-1.0)	5,722 (-0.2)	5,723 (-0.3)	5,722 (-0.4)	5,707 (-0.6)	5,673 (-0.7)	5,671 (-0.9)	5,630 (-0.9)	5,643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4.3)	7,606 (4.8)	7,674 (5.2)	7,762 (5.0)	7,824 (5.0)	7,684 (4.4)	7,924 (4.2)	7,976 (3.9)	8,032 (4.0)	8,061 (3.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2.8)	2,400 (3.3)	2,396 (2.5)	2,415 (1.8)	2,436 (2.2)	2,385 (0.9)	2,410 (0.4)	2,387 (-0.4)	2,362 (-1.8)	2,389 (-1.9)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8년 11월 고용동향』, 2008. 12.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임시·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 지속

- 2008년 1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440천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1천 명(-1.1%)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37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9천 명(1.0%)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111천 명으로 318천 명(3.6%)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71천 명으로 103천 명(-2.0%) 일용근로자는 2,195천 명으로 56천 명(-2.5%)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 2008년 1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75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7천 명(9.8%)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841천 명으로 166천 명(-0.8%)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745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0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천 명(15.4%)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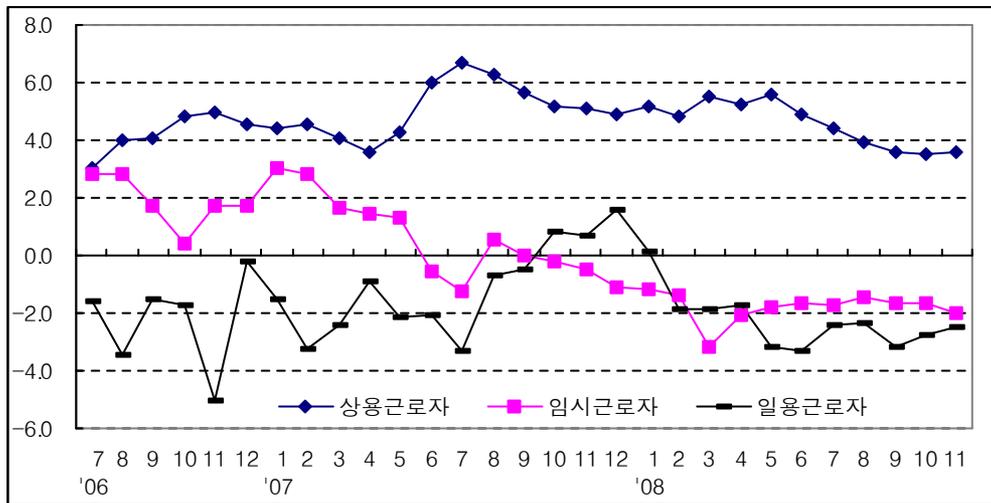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582 (1.2)	23,739 (1.2)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847 (0.4)	23,816 (0.3)
비임금근로자	7,199 (-2.2)	7,637 (-1.1)	7,589 (-2.2)	7,426 (-1.8)	7,521 (-1.8)	7,097 (-1.4)	7,521 (-1.5)	7,522 (-0.9)	7,533 (-0.9)	7,440 (-1.1)
자영업주	5,895 (-1.9)	6,139 (-0.9)	6,128 (-1.3)	6,035 (-1.4)	6,086 (-1.5)	5,816 (-1.3)	6,073 (-1.1)	6,052 (-1.2)	6,036 (-1.8)	6,003 (-1.4)
무급가족종사자	1,304 (-3.2)	1,498 (-1.8)	1,460 (-5.9)	1,391 (-3.4)	1,435 (-2.9)	1,281 (-1.8)	1,449 (-3.3)	1,470 (0.7)	1,497 (2.8)	1,437 (0.1)
임금근로자	15,642 (2.8)	16,061 (2.4)	16,022 (3.0)	16,156 (2.6)	16,218 (2.6)	15,954 (2.0)	16,350 (1.8)	16,229 (1.3)	16,314 (1.0)	16,377 (1.0)
상용근로자	8,404 (4.3)	8,533 (4.6)	8,753 (6.2)	8,790 (5.1)	8,793 (5.1)	8,839 (5.2)	8,981 (5.2)	9,101 (4.0)	9,138 (3.5)	9,111 (3.6)
임시근로자	5,163 (2.5)	5,237 (0.7)	5,133 (-0.3)	5,156 (-0.6)	5,174 (-0.5)	5,064 (-1.9)	5,141 (-1.8)	5,050 (-1.6)	5,034 (-1.7)	5,071 (-2.0)
일용근로자	2,075 (-2.4)	2,291 (-1.7)	2,135 (-1.5)	2,211 (1.0)	2,251 (0.7)	2,051 (-1.2)	2,227 (-2.8)	2,079 (-2.6)	2,142 (-2.8)	2,195 (-2.5)
36시간 미만	3,014 (6.4)	2,564 (1.7)	3,962 (23.7)	2,549 (-5.1)	2,511 (-8.7)	2,770 (-8.1)	3,055 (19.1)	5,132 (29.5)	2,570 (3.1)	2,758 (9.8)
36시간 이상	19,384 (0.2)	20,906 (1.1)	19,227 (-2.4)	20,806 (2.2)	21,007 (2.7)	19,888 (2.6)	20,546 (-1.7)	18,139 (-5.7)	21,042 (0.1)	20,841 (-0.8)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8년 11월 고용동향』, 2008. 12.

〔그림 7〕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30대, 50대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

- 2008년 1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 4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소폭 감소함.
 - 2008년 11월 중 연령별계층별 실업률은 30대(3.4%, 0.6%p), 50대(2.0%, 0.3%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0%, 0.1%p), 고졸(3.7%, 0.1%p)에서 증가하였고, 대졸 이상(3.0%, 0.0%p)에서는 전년동기와 동일함.
- 2008년 11월 중 전체 실업자 75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천 명 감소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17천 명으로 25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11월
전 체	851(3.6)	791(3.2)	756(3.1)	734(3.0)	733(3.0)	801(3.4)	767(3.1)	752(3.1)	736(3.0)	750(3.1)
15~29세	346(7.6)	330(7.3)	322(7.1)	312(7.0)	321(7.1)	328(7.3)	327(7.4)	303(6.9)	284(6.6)	291(6.8)
30~39세	216(3.5)	203(3.3)	189(3.0)	183(2.9)	178(2.8)	193(3.1)	187(3.0)	193(3.1)	207(3.3)	210(3.4)
40~49세	151(2.3)	130(1.9)	132(2.0)	126(1.9)	127(1.9)	160(2.4)	138(2.1)	138(2.1)	132(2.0)	130(1.9)
50~59세	96(2.4)	95(2.2)	80(1.9)	78(1.8)	73(1.7)	83(2.0)	82(1.8)	91(2.1)	88(1.9)	89(2.0)
60세 이상	42(1.7)	33(1.2)	34(1.2)	35(1.3)	34(1.2)	38(1.6)	33(1.2)	27(1.0)	25(0.9)	30(1.1)
중졸 이하	150(2.8)	112(1.9)	105(1.9)	109(2.0)	106(1.9)	128(2.5)	120(2.2)	113(2.1)	98(1.8)	111(2.0)
고졸	426(4.2)	379(3.7)	378(3.7)	372(3.7)	366(3.6)	402(4.0)	368(3.7)	381(3.8)	363(3.6)	371(3.7)
대졸 이상	274(3.3)	300(3.5)	274(3.2)	253(2.9)	261(3.0)	271(3.1)	279(3.1)	258(2.9)	275(3.0)	268(3.0)
취업 무경험 실업자	40	40	44	40	40	44	49	39	33	32
취업 유경험 실업자	810	751	712	694	693	757	718	713	702	717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년 11월 고용동향』, 2008. 12.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경기악화로 상용직의 초과근로시간과 임시직 근로시간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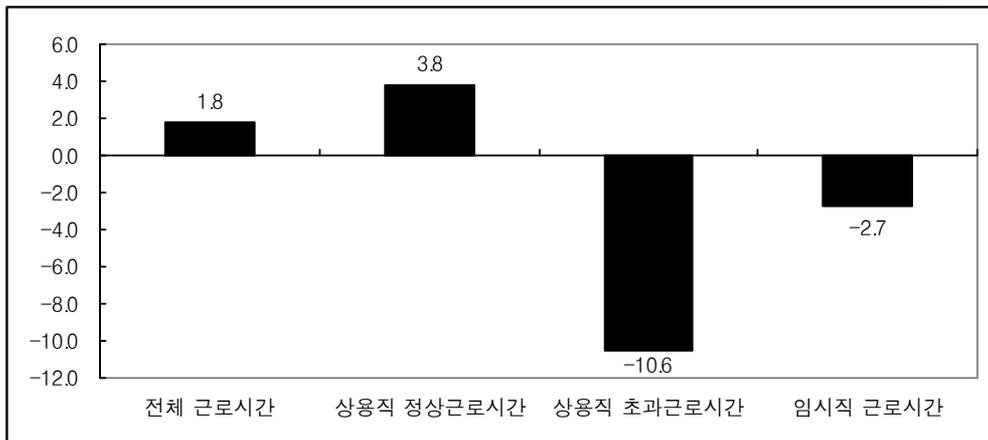
- 2008년 3/4분기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
 - 2008년 3/4분기 평균 전체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171.7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기(168.7시간)에 비해 1.8% 증가
 - 주당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39.5시간 기록
- 상용직의 초과근로시간, 전년동기대비 10.6%의 큰 감소폭 기록
 - 2008년 3/4분기 평균 상용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17.8시간을 기록하여 10.6%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유래없는 큰 감소폭임.

◆ 운수업의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

- 산업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및 건설업 등은 감소함.
 - 2008년 3/4분기 중 운수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7.5%, 부동산 및 임대업은 5.9%의 감소 수치 기록

[그림 8] 근로시간 증가율 추이(2008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8. 3/4분기.

◆ 전반적인 증가 속에 30~99인 규모의 근로시간만 감소

- 2008년 3/4분기 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장이 높고 중간규모가 낮은 V자 형태를 기록
 - 규모별 근로시간은 5~9인에서 5.3%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에서는 3.7% 증가하였으나, 30~99인은 1.0% 감소함으로써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장은 높고 중간규모는 낮은 V자 형태를 기록함.

〈표 6〉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2007. 3/4	2008. 3/4
전 산업	168.7	171.7 (1.8)
제조업	177.7	185.5 (4.4)
건설업	156.5	155.9 (-0.4)
도매 및 소매업	164.0	168.0 (2.4)
음식숙박업	169.6	174.4 (2.8)
운수업	183.1	169.4 (-7.5)
통신업	163.0	164.4 (0.9)
금융 및 보험업	155.8	160.8 (3.2)
부동산 및 임대업	195.2	183.6 (-5.9)
사업서비스업	158.3	170.5 (7.7)
교육서비스업	135.0	149.2 (1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5.6	168.7 (1.9)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53.5	166.1 (8.2)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3.6	176.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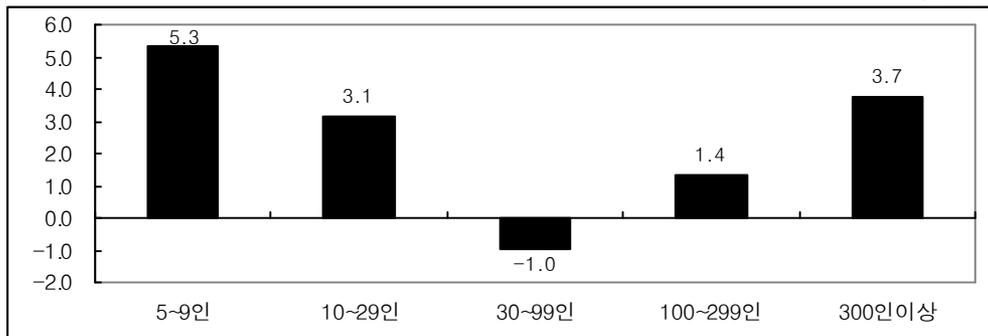
주 : 1)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그림 9〕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율(2008년 3/4분기)

(단위 : %)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8. 3/4분기.

(강승복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에 비해 1.5배 증가

○ 2008년 노사분규 동향을 살펴보면,

- 분규발생건수는 108건으로 전년동기(115건)에 비해 6.1% 줄어들었으나, 근로손실 일수는 809,402일로 전년동기(536,285일)에 비해 5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개소, 일)

	2007. 12. 31	2008. 12. 31
노사분규 발생건수	115	108
근로손실일수	536,285	809,402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KB국민은행지부, 무기계약직 노조가입 허용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무기계약직 5,006명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조직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7일 실시한 「무기계약 직원 조합가입」 찬반 투표가 87.6%의 찬성률(11,340명, 조합원 대비 77.8%)로 가결되었고, 무기계약 직원 5,006명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원서를 접수할 계획임을 밝힘.
 -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 전원이 조합 가입을 신청할 경우 지부의 조합원 수는 14,569명에서 19,57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됨.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제 계약직(3,177명)도 KB국민은행 노사간 비정규직 관련 합의(2007년 12월)에 따라 3년 도래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될 예정이므로 2010년에는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지부는 12월 중 2008년 임단협 교섭을 통해 현행 4직급체계(L1-L4)에 새로운 직급(L0)을 신설하여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보수 체계를 운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 이번 사례는 KB국민은행지부가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한편, 12월 29일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현 씨티은행)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무금융연맹 씨티은행노조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2009년 하반기에 무기계약직 노조 가입 추진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이는 KB국민은행지부 사례 이후 금융권에서 잇달아 발표된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코스콤 노사, 비정규직 조합원 65명 직접고용 합의

- 사무금융연맹과 (주)코스콤이 12월 29일 ‘비정규직 문제 합의 서명식’을 갖고 코스콤 비정규직부 조합원을 직접고용하는 데에 합의함.
 - 합의문에 따르면 (주)코스콤은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부 조합원 76명 중 지난 7월 18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65명을 별도 직군제 방식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노사간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함.
 - 또한 노사 양측은 기존에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한편, 현장에서 복귀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 노동계는 이번 코스콤 노사갈등의 해결 과정과 결과를 두고 간접고용을 둘러싼 위법적 행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한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직접고용을 쟁취한 첫 번째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사무금융연맹은 12월 29일 성명을 내고 “코스콤 비정규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와 기업들에게 있어 비정규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고 하며 “간접고용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힘.

- 민주노총도 12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코스콤 노사합의가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사회적 의미가 각별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비정규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힘.
- 한편, 이번 코스콤 노사합의와 함께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코스콤의 업무영역 및 고유사업 보장 등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함.
 - 두 연맹은 12월 29일 ▲ 코스콤이 수행 중인 제반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및 유지 발전 ▲ 2003년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계획’에서 수립된 정부정책의 이행 및 완결 ▲ 코스콤이 수행 중인 국가기간사업의 업무영역 및 고유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 ▲ 위의 사항을 비롯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연맹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T/F 구성·운영에 합의함.
 - 코스콤의 업무가 증권선물거래소로 이관될 경우 코스콤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두 연맹의 행보가 주목됨.

◆ 금융노사, 2008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은행연합 외 33개 금융기관이 12월 10일 2008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올해 산별교섭을 마무리함.
 - 그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 2009년부터 사용자단체 구성 및 산별 중앙노사위원회 설치 ▲ 근무시간 변경(09:30~16:30 → 09:00~16:00) ▲ 비정규직 차별금지·노동강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합의서 ▲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준수 등을 담고 있는 특별합의서에 합의함.

〈표 8〉 전국금융산업노조 2008년 산별중앙교섭 주요 타결 내용

	주요 내용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결
사용자단체 설치 관련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사용자단체 명의로 산별교섭 참여 ■ 산별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임금협약 및 지부보충교섭은 1년) ■ 금융산업 중앙노사위원회 설치·운영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2월 1일부터 영업시간 09:00~16:00로 변경 ■ 출퇴근 문화 개선 임원·부점장 정상 퇴근 솔선수범, 조기출근·휴일근무 억제 ■ 조직문화 개선 08시 이전 19시 이후 회의 자제, 일정시간 이후 CRM전산시스템 및 인터넷 사용제한 ■ 시간외근무수당 19시 30분 이후 인정된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또는 보상휴가 ■ 점검 및 평가
별도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별 대책 수립 ■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C.S.제도 개선 노력 ■ 고용안정을 위해 후선역제도 개선 및 적정운영 노력 ■ 사회적 책임을 위해 GRI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지속가능보고서의 정기적 발간 및 각종 국제규범 준수
특별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준수, 지속적인 신규채용 실시

자료: 금융노조, 『2008년도 단체협약 및 중앙교섭 합의서』, 2008. 12. 29.

- 이번 산별중앙교섭 타결로 인해 2009년부터는 금융기관장이 은행연합회장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기존 체계가 변화하여 법인격을 갖는 사용자단체와 금융노조가 1:1로 교섭하는 실질적 산별교섭 체계가 등장할 전망
 - 또한 영업시간의 변경과 함께 ▲임원·부점장의 정상 퇴근 솔선수범 ▲조기출근, 휴일근무, 무분별한 캠페인 억제 ▲08시 이전 19시 이후 회의 자제 ▲일정시간 이후 CRM(고객관계관리) 전산시스템 및 인터넷 사용제한 등이 실시되어 금융기관 노동자의 퇴근시간이 일정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 뿐만 아니라 노측의 임금동결 합의와 함께 사측이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합의하고 있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노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노동부,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 노동부는 12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2009~201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표 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핵심 추진과제

구 분	주요 내용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고용구조 개선 상시 고용 기업에 대한 계속고용지원금 우선 적용 ■ 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유도 ■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 방지 취업동포 쿼터 설정, 정기적인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조사 실시 ■ 법정근로조건 이행 정착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훈련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구축 ■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 촉진 훈련생에 대한 산업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제도 마련 ■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마련 경력증명서의 사회적 통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격의 활용 및 현장성 강화 건설현장 수요에 적합한 자격종목 신설, 건설기능경기대회 활성화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취업지원 공공서비스 강화 ■ 민간의 건설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원활한 취업지원 기반 구축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이수제도(Green Card) 도입 채용 전 안전교육 이수 안내 및 이수 근로자에 대한 그린카드 발급 ■ 설계 및 감리시 산업안전 고려 강화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집중관리
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수요 조사 후 우선순위·실행가능성 높은 프로그램부터 실시·확대 ■ 퇴직공제제도 적용 확대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자료: 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08. 12. 16.

– 그에 따르면,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매력적인 건설일자리, 보다 나은 건설근로자의 삶 보장’이라는 비전하에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이라는 5대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노동부는 최근 국내외 경제악화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가 12월 19일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함.

–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폐지(5개) 및 즉시 민영화(22개) 대상 기관을 제외한 278개 공공기관 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조직·인력 효율화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함.

〈표 10〉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 69개 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기능·정원 조정 (19,000여명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 결합하거나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가능한 기능은 폐지·축소 또는 민간위탁(39건, 4,500여명 감축) ■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 성과가 미흡한 사업 또는 고유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기능의 폐지·축소(79건, 5,900여명 감축) ■ 전산화·자동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리체계 개편,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95건, 7,700여명 감축) ■ 기타 조직 효율화 등(48건, 1,200여명 감축)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약 10조원 이상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매각(65건, 8.5조 원) 기관핵심기능과 관련성이 적은 자산, 사업폐지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자산, 불요불급한 부동산, 기타 유휴 토지 매각 ■ 예산절감(1.7조 원 이상) 정원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 2008년 대비 경상경비 5% 삭감, 기관별 자체 예산절감 노력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제(69개 기관 중 64개 기관 이미 도입, 4개 기관 도입 예정) ■ 임금피크제(69개 기관 중 18개 기관 이미 도입, 24개 기관 도입 예정)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부진자 퇴출프로그램 도입, 경영계약제도 확대, 성과급 차등 폭 확대
조직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 과도하게 적은 단위조직의 대부서 전환 ■ 지원인력의 적정 수준 조정 ■ '이사 대우', '특1급' 등 별도 직급 폐지 등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 2008. 12. 19.

-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으로는 ▲기능·정원 조정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조직효율화의 4가지를 들고 있음.
-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 중으로 2단계(소규모 기타 공공기관/통폐합 기관) 계획이 검토·발표될 예정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약 19,000여 명의 정원감축(69개 기관 총 정원 대비 13%)과 10조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노동계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12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국민의 기업을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 금융노조도 12월 22일 성명을 내고 “인력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예산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계약직인 인턴사원을 채용하는데 쓴다”며 “강제적인 인력구조 조정을 획책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밝힘.

- 2009년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이 발표될 경우 추가적인 인력 감축이 예상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KLI]

(강병식 노사관계연구실 전문위원)